

“흐르는 물을 가두지 마라”

솔피 정형식 개인전 10월 12일까지

“어느 곳이나 주체이며 그곳이 참된 곳이다.”
입체 선사의 어록 1만5000여자를 16쪽 병풍에 담아 선(禪)의 향기를 전해 해운 솔피 정형식 선생이 경주에 위치한 갤러리 솔피에서 10월 12일까지 ‘조가화무(鳥歌花舞)’를 연다. 한글 <금강경>을 비롯해 30여 작품을 선보이는 선(禪)과 묵(墨)의 일어(一如)는 흠뻑 먹칠을 취한 붓끝이 생생히 드러난 선의 춤사위로 초대한다. 놓칠 수 없는 대작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은 한 번의 휘호로 완성된 일련휘자의 작

품으로 다양한 장법과 포백(布白)을 통해 한계를 넘는 신선함을 엿본다. 개인전 열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의 작품은 작가의 깊고 두터운 수행생활과 만나 선사의 구절들을 오롯이 드러낸다. 작가의 열정과 고뇌가 화선지에 완성한 결실은 문자의 향기에 취하게 한다. 전업 작가임과 동시에 경주 동국대 미술학과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매진중인 작가는 스스로 흐르는 물이 되어 신라의 천년 숨결을 문자 예술로 승화하는 다음 작업을 구상중이다. (054)777-4883 가연숙 기자

시인 이상과 서정주가 만난 회화

염성순 화가의 ‘시와 몸과 그림’展 갤러리 눈

시인 이상과 서정주가 회화로 태어났다.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의 삶을 회화로 표현해온 염성순 화가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갤러리 눈에서 10월 5일까지 ‘시와 몸과 그림’을 연다.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화가 사각(1887-1965)의 구성과 색채를 연상시키는 분석적 입체회화의 향연이다.

회화라는 자율적 언어로 문학이라는 또 다른 자율적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에 버금간다. 이상과 서정주의 텍스트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독하고 이상의 작품에서 현대인의 분열상과 불안한 실존을, 서정주의 작품에서 자연에 대한 찬미를 포착한다.

작품 ‘꽃이 향기롭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는 이상

(1910-1937) 시인의 시 ‘절벽’을 시각화 한다. 화가는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들어 앉아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모방과 환영으로 거러두기를 취한다.

작품 ‘귀족도’는 서정주 시인의 시 ‘귀족도’를 회화로 표현한 것으로 시적 자아의 애절한 갈망과 한을 농축한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난 님을 향한 애절함에 관해 이선영 미술평론가는 “물과 산이 연상되는 풍경 속에 담긴 알의 이미지는 다산을 연상한다”고 분석하며 “서정주 관련 작품에서 자연은 여성의 관능과 중첩된다”고 평했다. 문학을 조형의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 화가가 밀착하는 색채 기법은 불분명한 시작과 끝으로 자유와 해방을 호소한다. (02)747-7277 가연숙 기자



염성순작 꽃이 향기롭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2008



정경연 화가 예술인생 30주년을 기념하며

혜안의 블랙홀, 예술의 경계를 삼키다

“구조와 체계의 틀을 해제하라.”

혜안이 따라 드러나는 조형의 변주곡을 선사해온 ‘장갑작가’ 정경연 교수(동국대 미술대학 섬유미술전디자인)가 예술인생 30년을 맞았다. 5월 부산에서 30주년 기념전을 성대히 치른 데 이어 10월 1-13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02-580-1610)에서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를, 10월 2-30일 서울 세오 갤러리(02-583-5612)에서 개관 5주년 기념초대전을 펼친다. 한국 현대 미술의 증인이 선사하는 장갑의 파노라마다.

과연 그가 지닌 스케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예술로써 삶과 인간을 구현하는데 재료가 얼마에게 되면 그것 또한 짐작이 되고 번뇌가 된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시도한 재료 렌티큘라(Lenticula)는 2차원의 캔버스가 지닌 제한성을 초월하죠.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중도(中道)를 구현합니다.” 일련의 작품들은 장갑의 나선들이 형성한 원으로 우주의 블랙홀을 이루며 은하수가 되고 그 근원에는 에너지 핵인 차크라가 공화(空花)로 만개한다. 입체적인 원근감은 홀로그램처럼 흡수될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자르고 붙이며 재구성한 작업 위에 염색의 붓 터치로 개미의 재료의 막스와 매치는 반복과 집중으로 환물과 확산의 경계를 아우른다.

무제한의 스케일·강력한 입체화·견고한 구조의 틀을 지닌 장갑의 오브제(Object)는 동서양의 사마니즘적 칼라와 원색으로 쉽게 충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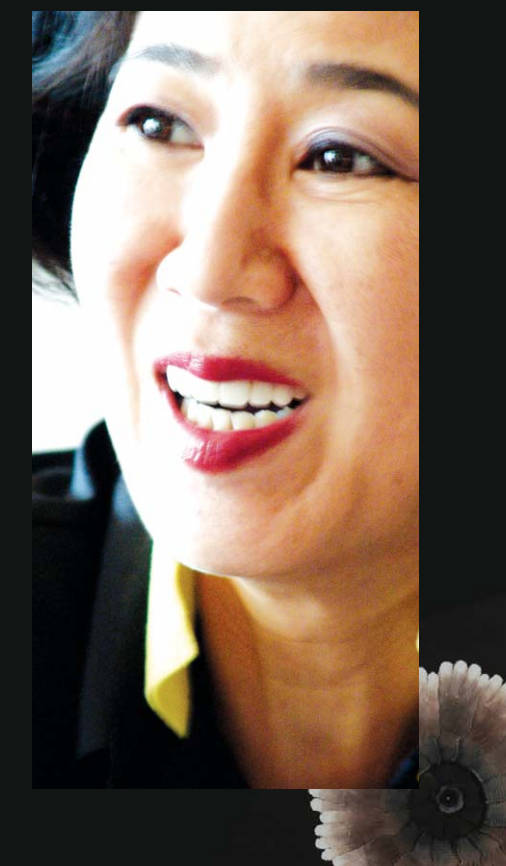
그녀가 1981년 첫 개인전을 열며 오늘날 한국 섬유미술의 대가로 거듭나기까지 거침없는 예술 활동의 원동력이 돼준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다. 현재 전국여교수연합회 10대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정 교수는 “명상을 통해 작품을 구상하고 예술로 승화한다”고 자부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블랙홀’이지만 10년 전에도 이름만 달랐을 뿐 꾸준히 시도했던 작업입니다. 불도와 예술행이 들어 아니라는 것이 제 삶의 철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을 만나 그 안에서 평상심을 유지한 덕분이죠. 참선하는 동안 펼쳐지는 에너지의 파장이 블랙홀이란 이름으로 시절 인연과 만나 이번 전시 주제로 화현된 것입니다.”

정경연, 그의 변화무쌍한 조형언어는 중생계와 부처의 삼천대원을 회오리친다. 남은 생애는 미지의 세계를 예술적 현실로 구체화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작품명 ‘무제’는 ‘Un-titled’가 아닌 무상(無常)의 ‘Non-title’이다.

가연숙 기자 omiflower@buddhapia.com



한국 현대 미술의 증인이 선사하는 장갑의 파노라마

신세대 찬불가요·문학 현상공모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업)는 찬불가요를 현상 공모한다.

불교 찬불가·동요·가요 세 분야에 걸쳐 공모된 가사는 부문별 10편 이내로 선정 돼 총 상금 6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전 원고마감은 10월 10일 오후 5시까지다. 현대적이고 대중화된 청소년 찬불가를 모색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이번 공모에 역량있고 참신한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원고 보낼 곳: (138-879) 서울 송파구 풍납2동 402 쌍용아파트 103동 1306호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사무국, (02)425-3002

가연숙 기자

동국의 불모 ‘문예향’展으로 뭉쳐

불교문화의 예술인 도반 두번째 전시

“민족미술을 근간으로 종교예술을 대중화하는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향(회장 이광훈) 회원전시 9월 29일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성료했다. 불교문화예술의 향기를 공동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문예향의 두 번째 전시다.

이광훈 회장은 “자연에서 배운 미(美)의 본질을 한국불교문화의 정체성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문예향의 정신”이라며 “작은 가지에 스치는 한 점의 바람에도 귀를 기울

이는 자제로 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산 스님(전태종 총무원장)은 축사를 통해 “17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미술이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의 메카 동국대를 통해 불교의 향기를 풍미할 수 있는 터전이 형성됐다”며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예술의 혼으로 승화시킬 바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시대에 부합된 성인의 상호로 불상을 조성해온 서철교 조각가를 비

롯해 불모(佛母) 50여명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불모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초심을 굳건히 하는 자리였다. 동국대 예술인 도반 문예향이 상주불멸의 부처님 말씀을 그리고 새김에 있어 한 짝 한 획의 예술정신이 진지함과 거룩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가연숙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02)2004-8200

한국사경연구회 청계천문화관서 회원전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는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를 주제로 제3회 회원전을 연다. 10월 7-19일 청계천문화관 기획전실에서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28명의 참여작가가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통사경과 현대사경을 중심으로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 다양한 사경의 세계를 선보이며 한국 전통 사경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행의 장이다. (02)2286-3410

가연숙 기자

베스트 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 百超백초스님**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미술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체적용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침을 장착하여서 음향 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어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째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전자불경 + 108염주 + 단주 > 50,000원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국보불교